

(1)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편년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6,000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 왔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에서 최고의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한국 신석기 시대의 상한은 8,000~10,000년 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¹ 이 때부터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여러 가지의 형태와 용도를 가진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부러지거나 무디어진 도구도 다시 갈아 손쉽게 쓸 수 있게 되었으며, 단단한 돌이나 무른 석질의 돌을 모두 이용하게 되었다. 또 진흙을 불에 구워서 만든 토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활이 좀 더 나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간석기와 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특징짓는 유물이다.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다. 이는 빗살무늬 토기를 공통 분모로 하는 범북방문화권(凡北方文化圈)에 속한다. 그리고 한강 유역의 첨저 토기와 함경도의 평저 토기도 원래는 한 뿌리로, 알타이 지역을 포함하는 바이칼 호 주변이 그 기원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보다 앞서는 시기의 토기들이 발견되는 예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무늬가 없거나 토기 몸체에 덧살을 붙인 것으로 각각 이른 민무늬 토기 혹은 덧무늬 토기로 불린다.² 최근에는 이 용기문 토기보다 앞선 이른 시기의 토기가 발견되고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고산리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들은 동북아시아에서 발견되고 있는 원시 토기들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석기 시대의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기를 동반하는 유적들이 앞으로 계속 발견된다면 신석기 시대의 개시기가 지금보다 상당히 앞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유적들의 시대 구분(편년)은 다음과 같다.

1. 기원전 6,000년 이전(8,000~10,000년 전) — 원시 민무늬(原始無文) 토기 : 고산리
2. 기원전 6,000년~기원전 5,000년 — 돌을무늬(隆起文) 토기 : 우봉리
3. 기원전 5,000년~기원전 4,000년 — 눌러찍기문(押印文) 토기 : 온산리
4. 기원전 4,000년~기원전 3,000년 — 빗살무늬(櫛

目文) 토기 : 동삼동

5. 기원전 3,000년~기원전 2,000년 — 부분 빗살무늬(部分櫛目文) 토기 : 봉계리
6. 기원전 2,000년~기원전 1,000년 — 이중 아가리(二重口緣) 토기 : 울리³

빗살무늬 토기의 시기가 되면 유적은 전국 각지에 걸쳐서 널리 분포하게 된다. 대표적인 유적은 평남 온천 궁산리, 평양 남경, 황해도 봉산 지압리, 서울 암사동과 하남시 미사동, 부산 동삼동, 김해 수가리, 강원도 양양 오산리 등이며 모두 강가나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다. 빗살무늬 토기는 도토리나 달걀 모양의 뾰족 밑 또는 둥근 밑 모양을 하고 있으며 모양도 다양하다. 빗살무늬 토기의 사용은 농사를 지어 식량을 생산하고 저장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 봉산 지압리와 평양의 남경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어 잡곡류가 이미 신석기 시대에 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이용된 주요 농기구로는 돌(뿔)괘이, 돌삽, 돌보습, 돌낫, 반달칼, 갈돌 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자료로 남아 있지 않으나 중국이나 일

1. 아직 정식 학술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이 유적은 3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세석기와 석핵이 나오는 후기 구석기 시대, 용기문 토기와 무경삼각축이 나오는 신석기 I기, 유경석축이 나오는 신석기 II기로 나누어진다. 신석기 I기의 경우 13,000년 전까지 올라가는 러시아 아무르 강 유역의 가샤 유적의 중심이 되는 오시포프카 문화 등과 비교해 볼 때 적어도 10,000년 전후가 그 중심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함북 용기 서포항, 강원도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조개터미, 통영 상노대도·연대도·육지도 등에서는 이른 민무늬 토기나 덧무늬 토기 등이 나오며, 이들은 빗살무늬 토기보다 더 이른 시기에 만들어져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이다. 이 토기를 만들어 쓴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보다는 주로 바닷가나 강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어귀에서 연어와 같은 회귀성이 강한 물고기를 중심으로 어로와 관련된 생업을 영위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빗살무늬 토기의 시기가 되면 유적은 전국 각지에 걸쳐 널리 분포하게 된다. 대표적인 유적은 평남 온천 궁산리, 평양시 남경, 황해도 봉산 지압리, 서울 암사동과 하남시 미사동, 부산 동삼동, 김해 수가리, 강원도 양양 오산리 등이며, 모두 강가나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다. 빗살무늬 토기는 도토리나 달걀 모양의 뾰족 밑 또는 둥근 밑 모양을 하고 있으며 크기도 다양하다.

3. 마지막 6단계인 이중 아가리 토기가 나오면 북쪽에서는 청동기 시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청동기 시대의 상한은 기원전 15~20세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1)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편년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6,000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 왔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에서 최고의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한국 신석기 시대의 상한은 8,000~10,000년 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¹ 이 때부터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여러 가지의 형태와 용도를 가진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부러지거나 무디어진 도구도 다시 갈아 손쉽게 쓸 수 있게 되었으며, 단단한 돌이나 무른 석질의 돌을 모두 이용하게 되었다. 또 진흙을 불에 구워서 만든 토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활이 좀 더 나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간석기와 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특징짓는 유물이다.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다. 이는 빗살무늬 토기를 공통 분모로 하는 범북방문화권(凡北方文化圈)에 속한다. 그리고 한강 유역의 첨저 토기와 함경도의 평저 토기도 원래는 한 뿌리로, 알타이 지역을 포함하는 바이칼 호 주변이 그 기원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보다 앞서는 시기의 토기들이 발견되는 예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무늬가 없거나 토기 몸체에 덧살을 붙인 것으로 각각 이른 민무늬 토기 혹은 덧무늬 토기로 불린다.² 최근에는 이 용기문 토기

¹ 아직 정식 학술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이 유적은 3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세석기와 석핵이 나오는 후기 구석기 시대, 용기문 토기와 무경삼각축이 나오는 신석기 I기, 유경석축이 나오는 신석기 II기로 나누어진다. 신석기 I기의 경우 13,000년 전까지 올라가는 러시아 아무르 강 유역의 가샤 유적의 중심이 되는 오시포프카 문화 등과 비교해 볼 때 적어도 10,000년 전후가 그 중심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² 함북 용기 서포항, 강원도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 통영 상노대도·연대도·육지도 등에서는 이른 민무늬 토기나 덧무늬 토기 등이 나오며, 이들은 빗살무늬 토기보다 더 이른 시기에 만들어져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이다. 이 토기를 만들어 쓴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보다는 주로 바닷가나 강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어귀에서 연어와 같은 회귀성이 강한 물고기를 중심으로 어로와 관련된 생업을 영위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빗살무늬 토기의 시기가 되면 유적은 전국 각지에 걸쳐 널리 분포하게 된다. 대표적인 유적은 평남 온천 궁산리, 평양시 남경, 황해도 봉산 지법리, 서울 암사동과 하남시 미사동, 부산 동삼동, 김해 수가리, 강원도 양양 오산리 등이며, 모두 강가나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다. 빗살무늬 토기는 도토리나 달걀 모양의 뾰족 밑 또는 둥근 밑 모양을 하고 있으며 크기도 다양하다.

보다 앞선 이른 시기의 토기가 발견되고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고산리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들은 동북 아시아에서 발견되고 있는 원시 토기들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석기 시대의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기를 동반하는 유적들이 앞으로 계속 발견된다면 신석기 시대의 개시기가 지금보다 상당히 앞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유적들의 시대 구분(편년)은 다음과 같다.

1. 기원전 6,000년 이전(8,000~10,000년 전) — 원시 민무늬(原始無文) 토기 : 고산리
2. 기원전 6,000년~기원전 5,000년 — 돌을무늬(隆起文) 토기 : 우봉리
3. 기원전 5,000년~기원전 4,000년 — 눌러찍기문(押印文) 토기 : 온산리
4. 기원전 4,000년~기원전 3,000년 — 빗살무늬(櫛目文) 토기 : 동삼동
5. 기원전 3,000년~기원전 2,000년 — 부분 빗살무늬(部分櫛目文) 토기 : 봉계리
6. 기원전 2,000년~기원전 1,000년 — 이중 아가리(二重口緣) 토기 : 울리³

빗살무늬 토기의 시기가 되면 유적은 전국 각지에 걸쳐서 널리 분포하게 된다. 대표적인 유적은 평남 온천 궁산리, 평양 남경, 황해도 봉산 지압리, 서울 암사동과 하남시 미사동, 부산 동삼동, 김해 수가리, 강원도 양양 오산리 등이며 모두 강가나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다. 빗살무늬 토기는 도토리나 달걀 모양의 뾰족 밑 또는 둥근 밑 모양을 하고 있으며 모양도 다양하다. 빗살무늬 토기의 사용은 농사를 지어 식량을 생산하고 저장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 봉산 지압리와 평양의 남경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어 잡곡류가 이미 신석기 시대에 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이용된 주요 농기구로는 돌(뿔)괘이, 돌삽, 돌보습, 돌낫, 반달칼, 갈돌 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자료로 남아 있지 않으나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나무로 만든 농경

³ 마지막 6단계인 이중 아가리 토기가 나오면 북쪽에서는 청동기 시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청동기 시대의 상한은 기원전 15~20세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